

[큐티 세미나] 큐티에 숨겨진 위험성

‘큐티 리더 누구나 할 수 있다’ 김원태 저 / 두란노

큐티할 때 보통 성경을 몇 절 정도 읽고 묵상합니다. 이런 식으로 매일 큐티를 하다 보면 전체를 보지 못하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.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열심히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 그러므로 성경 66권 중 한권으로 큐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책 전체를 보기 바랍니다.

또 큐티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성경을 지나치게 지식적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 머리만 커지고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.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기도와 말씀을 병행하는 사람입니다. 기도와 말씀은 새의 두 날개와 같습니다. 기도와 말씀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. 한쪽으로 치우치면 날 수도, 갈 수도 없습니다.

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공부에는 관심이 많고 잘 모이기도 하는데, 기도 모임에는 관심도 적고 잘 모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. 사람은 한 쪽으로 치우치기가 참 쉽습니다.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말씀도 많이 읽어야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신비주의에 빠질지도 모릅니다.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은 기도도 많이 해야 합니다. 자칫하면 머리만 큰 그리스도인이 됩니다.

그래서 어디에서나 문제를 일으키는 건조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.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고 했습니다. 그만큼 기도와 말씀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.

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보기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. 그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.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. 여호수아의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?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. (수 11 : 15)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.

누군가 교회에서 자랑 삼아 말하였습니다. “저는 하루에 성경을 다섯 장 읽습니다”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. “저는 성경을 하루에 열 장 읽습니다. “ 옆에서 이들의 대화를 들은 다른 사람이 조용히 웃으면서 말합니다. “저는 하루에 성경을 다섯 절 읽습니다.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삽니다. “

누가 가장 힘 있는 사람입니까?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.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한 편의 설교가 되기를 바랍니다. 가장 좋은 큐티는 말씀

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.

- '큐티 리더 누구나 할 수 있다' 김원태 저 / 두란노

* 출처 : 온누리신문